어린이어깨동무

2019. 02
통 권 17 호
15호

평화를 보는 새로운 시선

피스레터

• Peace Letter •

이 슈

02
평화로 한 걸음 더: 평화를 위한 모두의 어깨동무!
정영철

시 선

04
평화는 만남과 용기,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행동
박종호

07
평화의 북소리를 그리며
정진헌

10
역사의 길에서 평화를 찾다
김영환

12
명태
박정배

14
다정한 작별
주예지

신년의 희망과 다짐

평화로 한 걸음 더: 평화를 위한 모두의 어깨동무!

정영철

2018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평화와 번영'의 첫 발을 뗀 한 해였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딛고 남북의 정상이 세 번씩이나 만나 '전쟁없는 한반도'를 선언했고, 70여 년을 적대관계로 대결해왔던 북과 미국이 만나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2018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대한 발자국'을 뗀 해로 역사에 기록되기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의 2019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듯이, 북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북미간 회담은 물론이고 남북간에는 화해와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연초에 중국을 방문하여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벌써부터 일정과 장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하여, 평화를 향한 행보를 지속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올 한 해도 남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엮는 드라마같은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한 걸음 더 의미있는 진전이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서울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지금의 답답한 교착상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시기 남북관계의 단절을 상징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도 북의 비핵화에 발 맞추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남북의 협력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올해 남북이 밝힌 신년사와 최근의 북중, 북미간 움직임을 통해 그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평화와 번영'으로 한발 더 내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움직임이 모두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발걸음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한반도의 평화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정부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민간도 함께할 때 더 공고한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가 모두를 당황스럽게 할 정도의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민간이 미처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면, 올 해는 민간도 그 길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평양을 방문하고자 하는 희망과 단절되었던 북과의 교류와 협력을 말하지만, 이 길을 가장 확실하게 열어젖히는 방법은 한반도에 평화가 공고화되고, 남북의 공존과 번영에 대한 가치가 확고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2018년 11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방북 때 만난 장천탁아소의 육아원 아이들이 방문자들을 위해 예쁘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모습

아직은 우리 사회 곳곳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보다는 여전히 대결과 적대를 원하는 세력, 북과 미국의 만남에 불만을 가지는 세력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남북의 정부,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변화의 길목에서 이들이 언제든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민간이 평화를 위한 여정에 든든한 받침대가 되고 전 국민이 평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해 우리의 과제는 '평화로 한 걸음 더: 평화를 위한 모두의 어깨동무!'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올 한해 〈어린이어깨동무〉도 이 길을 변함없이 걷고자 합니다. 끊어졌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를 비롯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어깨동무의 평화교육과 평화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북녘의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활동도 더욱 창의적이고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회원분들과 어깨동무를 지지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어깨동무의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어깨동무를 지지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에서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2019년의 새해 인사를 대신합니다. 흔히들 꿈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실현된다고 합니다. 새해가 벌써 한 달을 넘긴 이 시점에 이 평범한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봅니다. 모두가 어깨동무하는 그 길에 평화와 번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2019년 '평화를 위한 모두의 어깨동무'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올 한해를 상징하는 복된 돼지가 한 아름 안기길 바라면서, 평화와 번영의 길에서 두 손 꼬~옥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영철 |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로 상경해 공학을 전공하다 진로를 바꿔 사회학을 공부하였다. 북한, 통일, 평화에 대한 연구가 관심사이며, 지금은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곧 어린이의 미래라는 생각에 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에 발을 들여놓고 일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읽기

코리밀라 공동체에서 보낸 꿈같은 시간

평화는 만남과 용기,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행동

박종호

북아일랜드에 온 지 셋째 날, 1월 15일, 코리밀라에 가는 날이다. 나는 2017년 2월에도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 연수에 참여하여 이곳에 온 적이 있다. 두 해 만에 다시 가는 길, 그 사이에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 내가 알아 볼 사람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틀 밤을 묵을 준비를 하면서 짐을 꾸려서 버스에 탄다. 모두 열여섯이 함께 움직이는 터라 부산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버스는 벨파스트를 벗어나 밸리캐슬로 달려간다. 한 시간 반 정도 달려서 코리밀라에 도착하자, 데릭 윌슨 박사, 포드릭 오투마 대표가 반갑게 맞아 준다. 데릭은 서울에 오셨을 때 파주 북한군 중국군 묘지에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반가워해주셨다. 어깨동무와 인연이 깊은 자원봉사자 오진의 선생도 반갑게 만났다.

짐을 풀고, 등 뒤로 바다가 보이는 큰 방에 나는 그 때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포드릭과 인사를 나누었다. 포드릭은 코리밀라의 역사를 찬찬히 소개하고, 둘레를 돌아다니면서 공간에 대한 사연을 풀어놓는다. 이곳에 평생을 바친 봉사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정원, 우리가 머무는 곳의 벽에 걸린 자전거 그림에 얽힌 사연을 들으면서 코리밀라 공동체가 걸어 온 길이 그저 그런 시간이 지나가서 쌓여 온 곳이 아니고 열정과 헌신, 지치지 않고 느리지만 목표를 향해 걸어 온 이들의 땀과 기도가 일군 곳임을 알았다.

코리밀라(Corrymeela) 공동체는 북아일랜드의 혼돈과 대립, 갈등의 시기에 젊은이들이 서로 다른 이들과 만나서 풀어가는 공간을 마련하는데서 출발하였다. 경치가 좋은 곳에, 바깥에서 일정하게 분리 고립된 곳에서 만남과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이 주는 이점을 살리고, 이를 공간을 가꾸고 만드는 일에도 어김없이 실현하고자 한다.

포드릭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돌아가면서 이곳에 와서 지금 마음에 어떤 질문을 품고 있는지 나누자고 한다. 이 공간에 와서 무슨 궁금한 것이 생겼나? 잠깐 생각하고 나는 차례가 되자 "두 해 전에 이곳이 왔을 때

는 바다가 보이는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오늘 다시 와서 둘러보면서 이곳에서 꿈을 이루고자 애쓴 분들의 뜻이 곳곳에 스며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제 벨파스트에서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화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심지어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경제 지원 프로젝트 제목이 'Peace'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평화가 돈이라는 점에도 신기하고 놀랐다. 정말 내가 아는 평화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내 이야기를 종이 칠판에 적은 데릭 윌슨은 "WHAT IS PEACE?"라고 적었다.

자유에 대해, 공부에 대해, 관계에 대해 같은 물음이 이어지고, 큰 종이 두 장에 가득 질문을 적은 뒤에 포드릭은 찬찬히 이야기를 이어간다. 사람이 만나는 것은 내러티브가 만나는 것이고, 갈등도 그대로 내러티브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궁금증, 호기심(Curiosity)이 배움과 만남에서 정말 중요하다. 책 읽기가 호기심을 채우는데 필요하며 읽기에서 상상력, 감수성이 발휘된다. 책을 읽는 일은 상상력을 키우고, 상상력은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필요한 공감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하다. 적대적인 사람들이 만나는 일은 서로 다른 내러티브가 함께 펼쳐지고, 위험한 상황이 따르지만, 그래도 여기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화로 가기 어렵다. 예를 들면 젠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여성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조약을 먼저 맺고 그 다음에 만나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을 따라서 해라 하면, 그냥 이끄는 것이고, 뜻을 이룰 수 없다.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고, 그 안전한 장소에 모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 놓고,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 코리밀라에 모이면 다양한 질문이 나오고, 자기 이야기가 나온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러티브가 이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퍼실리테이션(촉진자)도 필요하다. 아일랜드, 여기 코리밀라 대화의 공간에는 불을 피우는 장작불, 불태우는 공간이 있다. 장작불은 아일랜드 말로 심장 박동 소리를 뜻한다. 장작불이 타는 소리가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이다.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미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뭘까? 이미 갖고 있는 의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호기심은 지성을 동반한다. 교육활동이나 사회에서 보통 호기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기피하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평화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평화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평화로운 미래는 오지 않는다. 우리 코리밀라 공동체는 궁금해 하고, 호기심을 갖는데 용기를 가진 사람들과 지내기를 좋아한다. 그 사람들이 변화를 만든다고 믿는다. 그 사람들이 신뢰받는 사람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도 있다.

한편,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은 쉽게 지칠 수 있다. 의심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이들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평화활동가들을 만나는 공간,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생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권력 관계에서 보면 위험한 사람들이다. 소외된 사람들이기도 하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을 동반한 성숙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두려움을 갖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분쟁은 예측할 수 있지만, 오히려 평화는 예측 가능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평화를 얻기 어렵다. 우리가 궁금함을 갖지 못하고,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이다. 앞서 평화는 무엇인가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우리는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를 가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져 본 것은 만남이고 용기이고, 어떤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행동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온 것이다."

포드릭은 내가 한 물음, 평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었다. 한 개의 대답이라고 했다. 다른 더 많은 대답은 나한테 달려 있다. 내가 만나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고 찾아가야 한다.

저녁을 먹고 만난 이본 네일러 선생님도 그랬다. 인형극과 평화교육 강의, 인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잡아서 자기 이야기를 이어간다. 종교 상징물을 들고 상대가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지, 돌아가며 듣다 보니 내 손에 든 달마상을 보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고, 사람마다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사람들 사이의 갈등하는 이야기를 인형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다. 왕따, 싸움, 소외, 고통을 상대의 처지에서 말하고, 느껴 볼 수 있는 것. 아, 그래서 인형극이라는 형식을 넘어서 인형극 내용에서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느껴보고 연대하고, 공감해 보는 것. 이래서 인형극과 평화교육이 닿는다. 가슴 절절하게 느끼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끌어 나가는 이본 네일러 선생님의 내공이 무서울 정도로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내공은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쩌다 30년 가까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살아 온 나는 어떤 내공을 이야기로 내보일 수 있을까? 재작년 서울에서 이본을 만났을 때 그때는 느끼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보았다. 평생을 특수교육에 애쓰면서 인형을 가지고 만나고 소통하는 일에 전념해 온 사람이 보여 주는 모습은 감동이다.

밤 9시 전체 명상 기도 모임에 가 보았다. 동굴 같은 방에 어린이까지 스무 명 남짓 둘러 앉아 기도문을 같이 읽고, 이본 네일러 선생님이 만남,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상황을 가지고 인형극을 보여주셨다. 모두가 숨죽이며 인형극을 보고, 생각을 나눈다. 이본은 앞서 두 시간 강의를 하고, 바로 이어서 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 다 같이 다짐하는 노래를 부르고 헤어졌다.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살짝 흐려서 별은 쏟아지지 않지만, 거센 소용돌이가 친다는 저편 바다도 고요하다. 그리고 파란 잔디가 자리를 잡은 마당을 천천히 걸어서 밤 숙소로 돌아와 몸은 피곤하지만, 쉬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여기 코리밀라에서 느끼는 이 뜨거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타자를 치면서 기록을 한다. 내일도 코리밀라를 이끌어 온 네 분을 만나야 한다. 션 페터스, 쇼나 벨, 콜린 크렉, 데릭 윌슨. 정말 기대가 되는 만남. 궁금한 것을 묻고 또 묻기로 한다. (2019. 1. 15.)

박종호 | 십여 년 전 어린이어깨동무 후원회원으로 인연을 맺었으며, 현재 어깨동무평화교육센터 연구위원, 신도림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지내고 있으며, 학생들과 손잡고 금강산, 백두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베를린 윤이상하우스에서 보내는 평화의 편지

평화의 북소리를 그리며

정진헌

기해년, 황금돼지해라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일에서 새해 첫날은 카운트다운과 함께 쏘아 올리는 크고 작은 폭죽 소리와 불빛으로 시작합니다. 평상시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독일인들도 저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각자 가져온 폭죽에 불을 붙여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일 년 중 12월말 단 며칠만 폭죽을 판매하고 연말연시에만 터뜨릴 수 있기에 가족 단위로 혹은 친구들과 함께 요란하다 싶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새해맞이 법석도 그때뿐입니다. 독일에서 1월은 그리 유쾌한 달이 아닙니다. 밤은 긴데 짧은 낮 동안에도 해 보기가 어려운 날씨 탓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우울해 합니다. 성탄절 장터에서 흥겹게 보내는 12월과는 일상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간혹 저는 1월을 보내봐야 독일에서 왜 철학이나 신학 등이 발달했는지 이해한다는 농담을 하곤 합니다. 존재 자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계절이 새해 첫 달인 1월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올 해는 연초부터 불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일은 꼬였고, 경제적 손실도 생겼으며, 감정도 상했습니다. 액땜이라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억울한 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와중에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준 분들이 많았다는 것. 그렇게 마음 한 켠을 추스르며 스스로 평온을 찾으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을 부추기는 자존심과 정의감, 포기와 좌절을 종용하는 개인주의, 저항과 대안을 시도해보려는 모험심 등 내 안의 다양한 욕구와 가치관들이 서로 엉키거나 부딪쳤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내면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이역 땅 베를린에서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 첫 번 째는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이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스포츠가 평화와 화해에 기여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독일 외무성 장관이 개막식 인사에서 유난히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독일과의 개막전에서 패했지만 남북한 선수들처럼, 북측 대사관 소속 직원과 가족들도 남측 사람들과 함께 공동 응원단으로 참가하였었기에 의미가 컸습니다. 장벽을 거두어 낸지 이제 곧 서른 해를 맞는 베를린은 남과 북에게 잠정적 통일과 화합을 선경험케 해 주는 접촉 공간(contact zone)이 되어 주었습니다. 경기장 밖은 빨리 어두워지고 춥고 바람이 불었지만, 단 백 명밖에 안 되는 남북 응원단이 3만5천의 독일 관중 속에서도 뒤지지 않고 목청껏 '코리아 이겨라'를 외치며 뜨거웠습니다.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민족의 하나됨을 염원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과거사와 현재를 두루 살피는 일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핸드볼 대회가 마무리된 후 베를린에는, 현재 일본에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조선학교 상황을 알리고 연대하고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 일본 정부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조선학교 학부모회와 그분들을 지지하기 위한 한국시민연대 그리고 해외동포연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조선학교 학부모님들

은 독일까지 오시지는 못한 채 귀국하셨고, 대신 한국과 미국에서 오신 활동가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부터 손님맞이와 행사 준비를 나누어 진행했고, 다양한 연령대의 교민은 물론, 일본여성모임과 독일 활동가들도 초대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은 단지 한반도 영토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750만 정도 되는 해외 한인들도 분단국가의 축소판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 재일 조선학교의 현재와 미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내용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에 동포 연대를 통한 국제적 지지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베를린 조선학교 간담회

우리의 근현대사는 고난의 서사시임에 분명합니다. 성공적 이야기를 위해 과거의 고난이 더욱 부각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은 3050클럽 즉, 5천만 이상 인구를 지닌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는 국가들 대열에 일곱 번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로서는 처음이라니, 굴곡 많은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성공 신화가 미완의 역사적 과제와 현재적 어려움 등을 가리는 구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국은 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인성과 감수성이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에서는 더 힘든 약자가 보이질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시하면 결국 구관이 명관이 된다는 식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실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대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외로워도 꿋꿋이 걸어가는 삶은 고결합니다. 우리는 올 1월에 그러한 어르신을 잃었습니다. 14살 어린 소녀로 끌려가 22살까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셨던 김복동 할머니. 고인께서는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직접 증언하신 이후 국제 평화와 인권을 위한 운동가로 향년 93세까지 한길을 걸으셨습니다. 고인의 혼은 이제 나비가 되어 훨훨 저 세상으로 떠나셨지만, 고인의 유지는 이제 우리 후대의 몫이 되었습니다. 고인의 넋을 기리고자 윤이상하우스에 작은 소녀상과 함께 추모 공간을 만들어 제를 올렸습니다.

윤이상하우스 김복동 할머니 추모공간

그리고 할머니의 단호한 외침이 새겨진 손목 띠를 차기로 했습니다; “There must never be another victim like us (다시는 우리와 같은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 Kim Bok-Dong

할머니께서는 과거의 희생자이시지만,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미래적 열망을 실천해 오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육신이 갈가리 찢기는 고통을 겪으셨고, 오랜 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야 했던 사회문화적 폭력에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텐데도 고인의 바람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더 이상 할머니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람은 그토록 지켜지기 어려운 걸까요? 일본 정부나 천황의 진정성 어린 사과를 받아내는 게 그리도 어려운 일일까요?

2차 세계 대전 패망국 독일은 그 죄과로 분단이 되었고, 나치 전범들을 끝까지 찾아내 단죄함은 물론이요,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태인 추모비 앞에 무릎 꿇고 국가적 사죄를 올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태인 세력이 컸던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역사적 참회는 지금도 공공의 기억으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전범으로서 어떠한 처벌을 받았고 스스로 참회를 했던가요? 분단도 조선반도가 당했고 그로 인한 동족상잔의 비극도 조선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민간의 일이거나 개인적 선택의 문제였다는 지극히 몰역사적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지요. 물론 지난 박정희 정권 시기 그리고 그의 딸 박

근혜 정권 시기를 거치며 한국 정부도 절반의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안의 파시즘 역시 성찰하며, 할머니의 유지처럼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반듯하게 세워야 하는 과제를 위해 예술, 학문, 일상의 영역에서 다각도로 노력해야 합니다.

윤이상 선생님은 고통에 대한 인지를 작곡가의 생명으로 보셨습니다. 1983년 하신 말씀입니다; "A composer cannot view the world in which he lives with indifference. Human suffering, oppression, injustice… all that comes to me in my thoughts. Where there is pain, where there is injustice, I want to have a say through my music. (무심하게 살아가는 작곡가는 세상을 볼 수 없다. 나는 인간의 고통, 억압, 불의에 대해 생각한다. 고통이 있는 곳, 불의가 있는 곳에서 나는 나의 음악을 통해 말하고 싶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기 전인 1986년, 일본 도쿄에서 교향곡 제4번 "Im Dunkeln singen (어둠속에서 노래하라)"가 세계 초연됩니다. 이 작품은 전쟁 중에 수탈당하고 상처받은 여성들, 다시 말해, 일본군 위안부들의 고통을 위안하고, 평화를 염원하고자 작곡한 것입니다. 김복동 할머니께서 자신의 고통이 미래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염원하셨듯이, 윤이상 선생께서는 위안부 여성들의 아픔을 보편적 언어인 음악을 통해 승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전범국 일본의 수도에서 말이지요.

올해는, 북측에서는 3.1 인민봉기라 불리는 3.1운동 백주년이자, 상해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을 기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제2차 북미회담도 곧 열린다고 하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한 단계 진전되리라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거의 잘못에 대해 보다 엄격해야 합니다. 구습은 아주 쉽게 되풀이되고, 기득권 세력들은 기회를 틈타 항상 자신들의 자리를 재생산하려 합니다. 과거를 덮고 통 큰 화해를 얘기하는 건 약자와 피해자의 권리와 관용이지, 기득권자의 몫이 아닙니다. 역사의 상흔을 감성으로 느끼고 공감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은 이제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국가를 초월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도 3.1운동 백주년을 기리는 뜻 깊은 공연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윤이상 선생님의 초기 음악활동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다름슈타트 시의 현대음악제 폐막 작품인 타악기 독주곡 마르시아스(Marsyas)가 그것입니다. 작곡가 코드 마이에링(Cord Meijering) 선생이 3.1절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을 윤이상하우스 상주음악가 정은비씨가 3월 1일에 연주합니다. 마르시아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숲의 정령으로, 자신의 피리 연주에 도취되어 아폴로와 경쟁했다가 지고 맙니다. 그 형벌로 피부가 벗겨져 그 피부는 북이 됩니다. 그 북을 칠 때마다 마르시아스는 고통을 느꼈다지만, 그의 고통은 오히려 북소리로 승화되어 악기의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3.1운동과 만난 마르시아스는 일제의 총칼에 맨몸으로 저항한 조선 백성, 일본군 폭압에 짓밟힌 위안부가 됩니다. 평화적 시위는 무참히 짓밟히고, 위안부 소녀들의 아픔도 오랜 동안 무시되었었지만, 그 정신은 다시 살아나 더 큰 평화를 향한 열망의 몸짓과 소리로 재현됩니다. 수십 개 다양한 타악기들의 울림으로 부활할 나비의 꿈. 새로운 역사의 봄도 힘찬 북소리로 깨어나리라 기대해 봅니다.

마르시아스 타악연주가 정은비
& 공연복장을 협찬해 준 소녀상 작가 김서경

우울하고 힘들었던 기해년 첫 달을 보내며 다시 한 번 역사를 돌아보고 마음가짐 역시 새로이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까치까치 설날"이 왔습니다. 정초의 불운은 음력 지난해로 넘기고, 올 한해 어깨동무하며 다시 새 역사의 한 길 더불어 갈 수 있겠습니다. 어깨동무 친구들 모두 평화의 북소리가 울리는 기해년 되시길 바랍니다.

정진헌 | 어린이어깨동무 간사 출신으로,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독일 괴팅엔 소재 막스플랑크 종교와 민족다양성 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역임한 후,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 역사와 문화학부 한국학과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윤이상하우스 운영을 맡고 있다. 저서 및 공저로는, Migration and Religion in East Asia (2015), Building Noah's Ark (2015), 무엇이 학교 혁신을 지속가능하게 하는가 (2015),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2007), 북한에서 온 내친구(2002) 등이 있다.

평화의 마중물

역사의 길에서 평화를 찾다

김영환

내가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은 것은 1997년 여름의 일이다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친구들과 함께 일본 최북단의 땅 홋카이도(北海道) 슈마리나이(朱掬内)를 찾았다.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머나먼 혹한의 땅으로 강제연행되어 혹독한 강제노동의 끝에 죽어간 희생자들의 유골을 발굴하기 위해 열린 '한일대학생공동워크숍'(현재 동아시아공동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나선 길이었다.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얼룩진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 달려온 일본인, 재일조선인, 아이누[1]친구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삽을 들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두 나라의 역사를 상징하는 듯 빽빽하게 얽힌 대나무 뿌리를 걷어내고, 조심스레 한 뼘 한 뼘 땅을 깎아 내려가자 쪼그린 자세로 유골이 되어 묻혀있는 이름 모를 강제동원 희생자와 비로소 만날 수 있었다. 교과서로만 배우고 말로만 들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처음으로 눈앞에 마주한 순간이었다.

이름도, 국적도 알 수 없는 희생자는 유골이 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고통과 암흑의 세월을 딛고 역사의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내어 그 자리에 함께 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물음을 던졌다.

'이 사람은 식민지에서 끌려온 조선인인가 아니면 빚에 쫓겨 온 일본인 노동자인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끌려왔을까? 왜 이 사람은 1945년 해방이 되고 60여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찾지 않는 오지의 숲속에 묻혀 있을까? 고향에는 이 사람을 기억하는 가족들이 있을까?'

60여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본 강제동원 희생자는 그 자리에 함께 한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만남'을 선사했다. 한국인, 재일조선인, 일본인, 아이누 등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존재들이 유골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함께 마주하고, 서로의 '다름'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곳에서 분단의 현실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재일조선인 친구들을 처음으로 만났고, 70년대부터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밝히고 평화를 일구기 위해 애써온 일본의 시민들과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그곳에서 국가와 민족 벽을 넘어 손을 잡은 사람들은 참혹한 강제노동의 끝에 죽어간 희생자가 던진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고 지금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나 역시 일본에서 5년 동안 평화운동을 배웠고, 지금도 역사의 길에서 평화를 찾는 활동을 하며 살고 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났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동원되어 강제노동을 당한 원고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입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여 피고 신일철주금이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43년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19세의 청년 이

1)아이누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사할린, 쿠릴열도 등지에 분포하는 선주(先住) 민족

왼쪽부터 우에다 게이시(上田慶司) 씨,
故여운택 할아버지,
나카타 미쓰노부(中田光信) 씨

춘식은 94세의 노인이 되어 법정에서 승소판결을 들었다. 그러나 2013년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함께 만세를 부르며 기쁨을 나눴던 원고 여운택 할아버지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1997년부터 21년 동안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함께 싸워 온 신천수 할아버지도, 2005년부터 13년 동안 한국의 법정에서 함께 싸워 온 김규수 할아버지의 모습도 이날 법정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치적 '야합'을 꾀하면서 한일관계의 악화를 빌미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미루도록 지시했다. 양승태의 사법부와 피고 일본 기업의 대리인 김앤장은 한통속이 되어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재판거래를 통해 확정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국가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벌이는 동안 이 날을 평생 기다려왔을 세 분의 피해자는 끝내 승소판결의 기쁨을 맞지 못하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누구를 위한 국가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1997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시작된 재판투쟁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들도 이 날 법정에서 승소판결의 기쁨을 함께 했다.

우에다 게이시(上田慶司), 나카타 미쓰노부(中田光信). 40대의 공무원 신분으로 재판지원 활동을 시작해 온 두 사람은 여운택 할아버지가 재판을 위해 처음으로 일본을 찾은 날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며 자신들에게 돈을 주었는데, 처음에는 일본 사람은 못 믿겠다며 할아버지가 돈을 맡기기를 주저했다는 것이었다. 그 뒤 2003년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재판을 위해 할아버지가 일본을 찾을 때마다 지원자들은 할아버지와 술잔을 주고받으며 부자지간처럼 막역한 사이가 되었고, 한국에서의 재판투쟁도 지원하며 할아버지의 곁을 지켜왔다. 할아버지가 끝내 승소판결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매년 성묘를 거르지 않는 정성을 쏟아왔다. 할아버지를 회상하며 두 사람은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훔쳤다.

강제동원 판결을 둘러싸고 한일관계의 악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1965년 '한일협정'을 졸속으로 맺어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았다. 2015년 박근혜는 '외교참사'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합의'를 발표하여,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2018년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있기까지 역사 정의와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은 필요할 때만 '국익'을 말해온 권력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바로 외로운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 온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 온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이다. 국익을 들먹이며 한일관계의 악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해자의 곁에서 손잡아 온 이들에게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내일이 있다.

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동아시아공동워크숍, 평화자료관 · 쿠사노이에(草の家), 평화박물관에서 평화운동을 했다. 동아시아 시민들이 국가와 민족의 벽을 넘어 이곳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고 있다.

음식으로 만나는 남과 북

대한민국의 대표 생선이 된 함경도의 생선과 음식 문화

명태

박정배 음식칼럼니스트

명태는 북한을 대표하는 생선이자 한민족 특유의 음식이었다. 러시아어 민타이(минтай), 중국어 밍타이(明太), 일본어 멘타이(明太)는 모두 명태에서 유래한 말이다. 명태에 관해 가장 오래된 기록은 함경도 회령에서 근무했던 무관(武官) 부자(父子)의 일기인 부북일기(赴北日記) 1645년 4월 20일자에 "판관이 생대구 2마리, 생명태(生明太) 5마리를 보내주었다"로 나온다.

함경도의 생선 명태와 명태매운탕

명태라는 이름이 '명천'의 '태'씨에서 왔다는 임하필기(林下筆記, 1871)의 전설 같은 이야기도 함경북도 명천이 무대다. 북한에서는 칠보산 근처 명천읍 보천마을에 명태란 이름을 만든 주인공인 태씨가 사는 '명태집'이 있다는 이야기가 잡지나 책에 자주 등장한다. 명태는 함경도의 특산물로 빠지지 않는다. 특히 신포의 명태와 명란젓이 유명하다. 북한의 천리마(2009년 10호) 잡지에는 명태에 관한 과장이 섞인 기사가 나온다. '명태 생선국은 입맛을 잃고 죽음의 문어구에서 헤매던 사람들에게도 생기와 활력을 주는 특효 있는 명약이다.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는 한겨울에 뜨뜻한 아래 구들에서 얼벌벌하게(얼얼하게) 한 그릇만 먹어도 10년 묵은 고뿔이 뚝 떨어진다는 명태 생선국이며 명태의 내장은 다 꺼내고 대신 갖은 양념을 한 순대 감을 다져 넣어 처마 끝에 주렁주렁 매달았다가 설명절 날 아침에 센 불에 푹 쪄내는 명태 통 순대, 대소한의 강추위에 얼대로 얼고 마를대로 말라 잘 타갠 솜같이 부풀어 난 북어(마른 명태)를 쭉쭉 찢어 먹는 맛이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지경이다.' 재료 그대로의 맛에 얼큰한 고춧가루를 섞어 먹는 함경도식 조리법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 명태매운탕은 2017년에 북한의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명태매운탕은

용대리 황태덕장

줄여서 명태국으로도 부른다. 조리법은 기본적으로 명태 대가리 국물에 명태와 알, 고지(명태 수컷 정소), 두부를 넣고 고추장으로 간을 한 음식이다. 여기에 게살을 넣어 맛을 돋구기도 하고 소고기 맑은 장국을 국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명태 사정과 남북한 명태 방류 사업

북한에서는 음력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를 '명태철(명태잡이철)'이라고 한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명태는 북한의 중요한 식량자원이었다. 김일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들의 부식물 문제를 푸는 데서 물고기 생산을 늘이는 것이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로동신문 1975년 11월 25일자)라고 했다. 당시 명태 어로를 '명태폭포 쏟아지네' (조선문학 1974년 3월)라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최근 들어 남한과 마찬가지로 명태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2017년부터 함경북도 련진수산사업소의 주도 하에 '명태 인공알 받이'와 '새끼명태 기르기'를 시도해 2017년 4월말부터 5월 상순까지 수십만 마리의 새끼명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동해에 놓아주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2000

년대 들어서면서 남한의 명태는 거의 사라졌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성 앞바다에 명태 122만6000마리를 방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포획된 방류 개체는 총 4마리가 전부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는 대한민국 산 명태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완전이 없어졌다. 조선시대부터 함경도, 강원도 앞 바다에서 잡힌 명태의 주 소비처는 서울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전체였다. 겨울에는 얼린 동태로, 봄 여름 가을에는 북어나 황태로 남쪽 사람들의 밥상과 제사상에 명태는 빠지지 않던 생선이었다.

고성 해양심층 고성태

명태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

명태는 크게 생태와 마른 명태로 나누어 이름이 구분된다. '선태'鮮太는 생선명태生鮮明太의 약자인데, '태어'太魚와 함께 생태를 지칭한다. '동태'凍太는 동해안 일대와 서울에서 부르던 명칭으로 몽둥이처럼 딱딱하게 자연상태에서 얼은 생태를 말한다. 망태網太는 일반적으로 그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함경남도의 방언으로 그물로 잡는 것 중에서도 가장 크면서 비싼 명태를 지칭한다. 크기에 따른 구분으로는 '왜태'와 '애태'가 있는데, 왜태는 함경남도의 방언으로 특대特大의 명태를 말한다. 왜태와 반대되는 의미의 애태 역시 함경남도 방언으로 '막물태'로도 불린다. '애' 또는 '아기'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아주 작은 명태를 말한다. 잡히는 지역으로 명태를 구분하기도 한다. '강태'江太는 강에서 잡히는 명태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잡히는 명태를 말한다. 서울 지역에서는 색이 검고 가벼워 품질이 나쁜 건명태를 부르는 말이었다. '간태'杆太는 강원도 간성군 연안의 명태를 일컫던 말이다. 원산에서도 강원도산 명태를 강태 또는 간태라 불렀다. 그밖에 반 건조한 '코다리'와 어린 명태인 '노가리'도 있다. 현재 북한에서 많이 먹는 마른 명태로는 '짝태'가 있다.

북한의 노랑태 대한민국에서 황태가 되다

원산 이북의 추운 땅에서 만들어진 북어를 사람들은 노랑태 또는 더덕북어라 불렀다. 지금 우리가 먹는 황태다. 속이 노랗고 포실하게 살이 오른 황태는 분단 이전에는 남한 땅에서 만들 수 있는 먹거리가 아니었다. 부드러운 황태가 1950년대 말 실향민들에 의해 횡계의 용대리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남한 사람들은 황태를 비로소 소비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황태나 북어는 러시아산 명태를 인제군 용대리와 평창군 횡계리에서 주로 가공한다. 북한의 음식 문화가 남한에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한 예다. 1973년 3월 12일 『동아일보』 기사는 남한에서의 황태 역사를 선명히 증언해주고 있다. "휴전 3년 뒤인 1956년이었지요. 그해 봄부터 노랑태를 만들 수 있음직한 곳을 찾아 헤매던 중 대관령에 들렀을 때 손뼉을 쳤지요. 대관령 원주민들이 가을에 동해안에 내려가 명태를 사다가 일부는 먹고 나머지는 다음해에 먹으려고 새끼로 꿰어 처마 밑에 걸어두곤 하는데 이것이 봄이 되면 껍질이 노랗게 되고 고깃살도 폭신폭신해지는 게 훌륭한 노랑태가 아니겠어요."

우리 명태는 없지만 황태와 북어 문화는 남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태가 사라지면서 생태 문화도 대한민국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북이건 남이건 명태가 풍성한 동해 바다를 기대한다. 점심에는 횡계에서 북어 해장국을 먹고, 저녁에는 함경도의 명태 매운탕을 먹을 날을 꿈꾼다.

고성 거진항 황태국

좌충우돌 교실 이야기

극도로 예민한 중2 스물아홉이 모였다.
그중 담임이 가장 예민할 때 생기는 일들에 관하여.

마지막 이야기

다정한 작별

주예지

대학 시절, 부산에서 온 친구가 있었다. 새내기 오티에서 처음 얼굴을 보고 대학 다니던 내내 강의도 같이 듣고 졸업해서 임용 공부도 같이 했던, 마음을 같이한 단짝친구였다. 친구가 서울에서의 짐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가던 날, KTX를 타기 전 친구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청춘 드라마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별 장면은 아니었다. 추운 겨울날에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한 번 더 질척이는 완벽한 '진상'이었다.–심지어 연인도 아닌 친구이다.–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서 서로 웃곤 한다. 그 때는 이제 다시 지난 6년간의 세월처럼 같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하루 종일 붙어 지내는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게 다가왔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울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지 않은가. 한참을 울고 난 이후에야 친구를 놓아줄 수 있었다.

◎

겨울 방학이 지났다. 봄방학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나와 마무리 정리를 한다. 교실 사물함과 책상 속도 비우고, 청소도 하고, 친구들과 인사도 하고. 새해가 된지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보던 얼굴들이 익숙해서 그런지 여전히 2018년인 듯하다. 참 애매한 일주일이다. 생활기록부 점검 등 업무는 많지만 수업을 하기에는 곤란하다. 방방 뜨는 분위기에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자습이나 독서를 시키고 심심한 아이들은 국어 관련 퀴즈를 준비해가서 학습지를 채우면 사탕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 마지막 수업 날이 왔다. 사실 교과 수업에 들어가는 반은 딱히 이별 멘트를 준비하지 않았다. 물론 국어가 일주일에 네 시간이나 들어서 정이 든 아이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담임이 아니어서 내 새끼(?)라는 생각이 덜하기 때문일까. 이별이 그렇게 아쉽지만은 않다. 그래도 마지막을 얼굴도 제대로 못보고 고개 숙인 정수리만 보고 헤어지기는 아쉬워 고민하다가 종치기 2분 전에 잠깐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헤어지자고 슬쩍 말을 건네 본다. 자다가 일어나라는 소리에 귀찮아서 눈을 반쯤 뜨는 아이, 문제집 풀다가 슬쩍 눈길을 주는 아이, 종 치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계에서 눈을 못 떼는 아이, 무슨 말을 할까 궁금증이 묻어 있는 아이. 가지각색의 얼굴들이 교실에 차오른다. 그냥 잘 지내라고 인사나 하려고 했는데 날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빛에 잠시 후회한다. 뭔 말이라도 준비해 올 걸. 준비 안 된 상투적인 아무 말이 입 밖으로 나온다.

1년 동안 고생했어요. 2반 덕분에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어요. 음, 올해 3학년은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해 줄 거죠? 방학 잘 보내세요.

글로 보니까 더 멋없다. 그래도 1년 동안 얼굴을 맞댄 아이들인데. 스스로의 멋없음에 탄식하면서 문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박수 소리가 들린다. 충동적인 마지막 인사에 예상치 못한 박수여서 더 놀랐다. 이런 멋없는 마지막 멘트에도 박수를

쳐 주는 아이들이 참 고맙다. 1년 동안 수업할 때 가장 애 먹은 반도 예외 없이 박수를 보내 주었다. 박수를 친 건 아이들이었지만 정작 받는 사람이 더 고맙고 참 기분 좋은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교과 수업 아이들과 마지막을 보내고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 남았다. 교사가 되기 전에 마지막 헤어짐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꽤나 어렸을 적부터 선생님을 꿈꿔 왔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에 가면 아이들과 하고 싶은 이것저것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헤어짐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헤어질 때 감동적인 장면, 눈물과 함께하는 뭐 그런. 작년에는 신규인 것을 고백했었다. 아이들이 몇 살이냐, 선생님 처음이냐, 어디 학교에서 왔느냐… 끈질기게 물어도 "중학교는 처음이야ʌ.ʌ"라면서 철벽 방어를 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첫 제자였다고 털어 놓았다. 그동안 서툴렀던 것들이 많았을 텐데 이해해주고 잘 따라와 줘서 고맙다고 나름 혼자만의 감동을 받았었다. 서른 명이 다 모인 교실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마주하는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참 아쉬웠다. 이제 다시는 아이들을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 퍽 섭섭했다. 이별의 공허함은 다시는 이 순간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아쉬움에서 온다. 아이가 먼 곳으로 전학을 가거나 해외로 유학을 갈 때 어쩌면 이 아이와 평생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괜히 울컥한다. 아이들을 다음 학년으로 올려 보낼 때도 이제 각자 다른 반으로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이렇게 서른 쌍의 눈동자를 마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괜히 울컥한다.

첫 해에 비해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이번 아이들은 마지막까지 어려웠다.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보통 시원섭섭함인데, 이 중 시원함과 섭섭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문제이다. 다 끝난 마당에 솔직해지자면 이번 아이들은 '시원'섭섭하다. 더 이상 아이들 간의 관계 문제로 골머리 앓지 않아도 되는 구나. 더 이상 학부모들과의 전화로 긴장할 일이 없겠구나. 물론 또 다른 아이들, 또 다른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이 반을 벗어난다는 것이 해방감을 주었다. 그래도 막상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니 마음이 또 싱숭생숭하다. 마지막 종례를 하러 들어가는데 교실 불이 꺼져있다. 들어서는데 칠판에 정성스럽게 쓰인 '주예지 선생님, 사랑합니다.' 글씨와 꽃다발과 편지를 건네주는 작은 손이 보인다. 남자 아이들은 서로 안아드리라고 장난을 치고 있다.–물론 아무도 안 아주지 않았다.– 나도 머쓱하게 괜한 말을 해본다. "우리 이런 거 하는 사이 아니잖아, 왜 이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터라 놀라우면서도 민망하다. 깜짝 파티가 한 세심한 여자 아이의 주도 아래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내심 기특하고 고맙다.

방송으로 종업식이 끝나고 마지막 종례이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다. 돌이켜 보면 미안한 것도 많았고, 고마운 것도 참 많았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차고도 넘쳤다. 그런데 얼른 가고 싶어 가방을 매고 친구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런 아이들이다. 끝나고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갈 피씨방과 맛있게 먹을 떡볶이가 눈에 아른거려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이다. 결국 1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 마디만 전한 채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을 보냈다. 아무리 시원함이 컸다고 해도 조금 남아 있는 섭섭함이 고개를 들어 존재감을 알린다. 다정한 말 한 마디 못하고 보낸 것이 못내 섭섭하다.

◎

부산 친구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사실 대학 초부터 그 친구는 졸업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별을 두려워하던 '쫄보'였던 나는 언젠가 그 친구에게 큰 마음을 먹고 통보했었다. 어차피 너 부산 가야 하니까 너무 친해지지 말자고, 지금부터 정 떼자고. 그런 바보 같은 모진 소리에도 대학 내내 곁을 지켜주었던 친구가 참 고맙다. 부산으로 떠날 때 친구는 참 다정했다. 또 보면 된다고, 부산에 친구가 있으면 놀러 오기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자주 보자고.–친구 말대로 부산에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매 여름마다 부산에 놀러 간다.– 또 보자고 안아주던 친구의 다정한 작별처럼 아이들도 다음을 기약하며 이제 놓아주어야겠다. 5년 뒤 스무 살의 나에게 쓴 편지를 인질로 강제 소환할 그 때까지.

다정하게, 안녕.

주예지 | 국어가 어렵다는 아이들의 투정 어린 원성에 나도 어렵다며 유치한 설전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 국어교사입니다. 2017년에 목동중학교에 교사로서 첫발을 디디고 2년 동안 중2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 2019년에는 중2를 맡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피스레터

평화를 보는 새로운 시선

어린이어깨동무

15호 통권 17호 펴낸 날 | 2019년 2월 20일 세달에 한 번 펴냄 펴낸 곳 |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 디자인 | 반페이지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7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217호 Tel | (02)743-7941~2 Fax | (02)743-7944 Web | www.okfriend.org
Blog | peacecenter.tistory.com Email | peace_center@okfriend.org